

1 찬양과 기도

- 찬송 : 새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
-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

·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

- 11**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.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.
- 12** 내가 바다입니까,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?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?
- 13** 내가 '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 주겠지,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 주겠지'라고 하면
- 14**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.
- 15**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.
- 16**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.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.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.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?

· 고통 속의 절규

- 17**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?
- 18**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?
- 19**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? 침을 꿀꺽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?
- 20** 오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여,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? 주께서 왜 나를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?
- 21**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 주지 않으십니까? 이제 내가 흠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.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."

3 묵상하기

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.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 욥도 그런 막연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. 잠시라도 다 잊고 잠잘 수 있는 시간마저 왜 악몽에 시달리게 하시냐고 하소연할 만큼 욥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. 하나님의 관심은 감시로 느껴지고(18절),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과녁이 된 것만 같습니다(20절). 고난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진 욥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, '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왜 그렇게 감시하고 시험하십니까?(17-18절)'라는 하소연이 '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왜 이렇게 돌보십니까?'라는 감격의 고백으로 바뀔 것입니다.

4 적용하기

욥처럼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버거울 때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히려 감시와 채찍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. 굳게 붙잡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영적으로 한없이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,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.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.

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(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)

- 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?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- ② 요즘 나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짓누르는 일이 있다면, 오늘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뭐라고 털어놓으면 좋을까요?

6 기도하기

-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
- ②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오해하지 않고, 그 너머의 은혜를 발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-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.

1 큐티하기 전 기도

- 찬송 : 새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
-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?

13 내가 '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 주겠지,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 주겠지'라고 하면

14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.

15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.

16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.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.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.

17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?

• 궁굼 사전

- * 질식: 산소가 모자라 숨이 막히는 것
- * 허무: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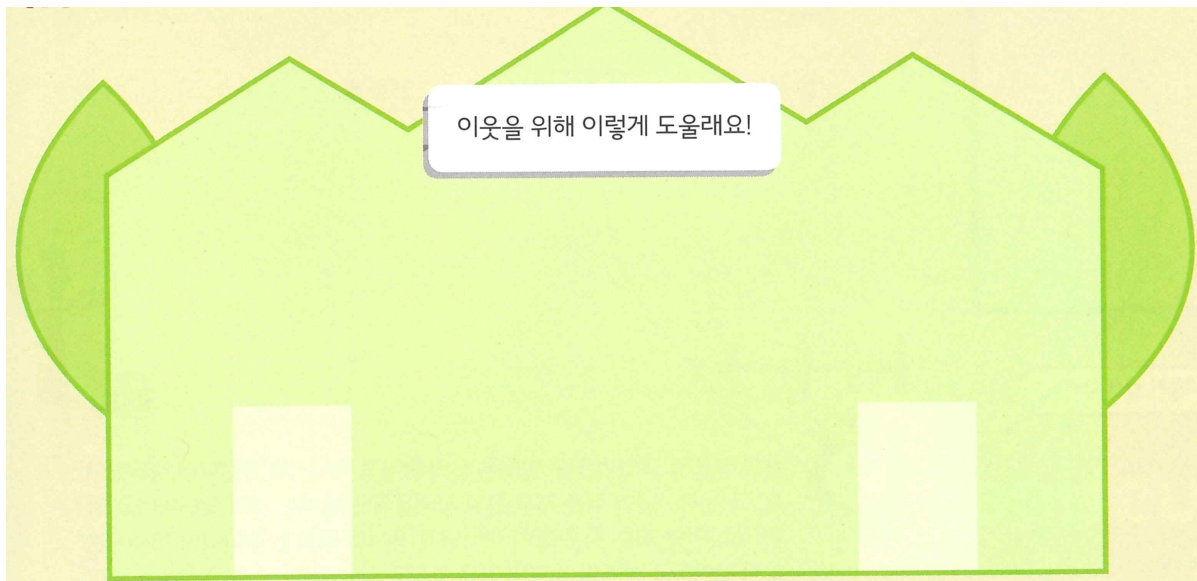
• 말씀 씨앗

욥은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요.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무섭게 하시고,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. 그래서 욥은 사는 것이 싫다고 말하며 자신을 혼자 내버려 달라고 외쳤어요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

3 말씀 새싹 - 읍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말이 아닌 것을 찾아 o표 하세요.

	① 주께서 꿈 속에서 두렵게 하십니다.
	②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.
	③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.
	④ 내 인생이 행복하기 짝이 없습니다.

5 말씀 열매 - 읍처럼 힘들어하는 주위의 이웃을 위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? 생각하여 아래에 쓰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.



•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

읍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버려 두시라고 했어요.

6 기도하기

하나님, 살기 힘든 이웃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